

성별에 따른 대학생 음주습관과 간 건강에 대한 인식도

양현서, 최가인, 백경원, 이지혜, 김혜진, 이정화, 윤현서, 이민경†
동의대학교 치위생학과

College Student Drinking Habits and Awareness about Liver Health Based on Gender

Hyun-Seo Yang, Ga-In Choi, Kyung-Won Baek, Ji-Hye Lee, Hye-Jin Kim,
Jung-Wha Lee, Hyun-Seo Yoon, Min-Kyung Lee†
Dett. of Biomedical Health Scienc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drinking habits of college students and their perception regarding the liver health by gender. The target students attended colleges located in Busan area. The most common social perception of drinking was "Drinking alcoholic beverage is essential for making a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 (3.49 points)". "It is good for the man to know how to drink alcoholic beverage (3.49 points)" was the second and the third was "Alcoholic drink makes life more elegant and tasteful (3.01 points)". Among 15 questions related to the knowledge on the liver health, respondents showed more than 90% correct answer rate only for three questions, which were "Drinking can cause esophageal cancer, liver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s, and hepatocirrhosis (94.3%)", "Drinking alcohol well does not mean that the person is healthy (93.3%)", and "The incidence of cirrhosis is high when drinking alcohol for 15-20 years or more. (93.0%)".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knowledge was not much different between gender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education material to improve the behavior of the male since the male had more generous drinking perception and more frequent drinking binge frequency, although the level of knowledge was little different between gender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Liver health, Drinking habits

† Correspondence to Lee M-K,
Tel: +82-51-890-4238
Fax: +82-0505-182-6878
E-mail: lmk849@deu.ac.kr

Received Feb 10, 2017
Revised Mar 28, 2017
Accepted Mar 28, 2017

I. 서론

한국사회는 음주에 대해 문화적으로 매우 관용적이기 때문에 음주율이 남녀 모두에서 높고 과음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과일 소주 등의 증류주가 많이 출시되어 과거보다 여성의 술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문제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으로 알코올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있다[1].

‘보건복지부, 2013 국민건강통계’의 성 및 연령 집단별 고위험 음주율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22.5%, 여자 7.2%로 남녀 간에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알코올의 대중화는 대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나라 대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19-29세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0년 14.7%, 2011년 15.5%, 2012년 16.3%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알코올 섭취의 증가는 생활과 신체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2][3].

2001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즉,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주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술을 잘 마실수록, 많이

마실수록 우대되며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등 잘못된 문화는 알코올로 인한 피해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4].

국내에서 4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간암의 원인 중 20%가 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발병인 만큼 음주와 간 건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간암 사망률이 30%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0대 남성의 사망원인 1위가 간암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인으로는 회식과 같은 잦은 술자리도 있지만, 20대 때부터 형성된 과도한 음주습관이 20여년이 지난 후 간질환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 잔 돌리기’라는 수작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러한 ‘술 잔 돌리기’는 충치, 아구창, 구강 헤르페스, 헬리코박터, A형 간염 등 여러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어서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을 나누는 행위’라며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은 신체 구성 성분상 체지방 비율이 높고 체내 수분이 적어 알코올성 간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소량의 알코올 섭취로도 심한 간 손상을 올 수 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질환의 발병 후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대부분 질병이 많이 진행되고 난 후에 발견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를 우리나라 특유의 음주문화와 알코올 섭취 습관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생활 습관 및 음주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생의 음주 습관, 음주에 대한 인식, 간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여 대학생들의 음주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및 교육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하고자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습관과 간 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1월까지 약 두 달간 조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학생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122명, 오프라인 178명으로 조사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송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4]. 일반적 특성 6문항(성별, 학년, 전공계열, 거주형태, 사 이버 강의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간 건강에 대한 지식도 15 문항(여성은 남성에 비해 간질환에 취약하다, 하루 소주 4잔 이상을 마시면 위험 수준이다, 음주는 여러 질병의 발병 인자 이다 등) 정답 1점, 오답 0점으로 하여 최고 15점, 최저 0점으로 처리하였으며 문항 간 신뢰도는 0.408이었다. 음주습관 14 문항(질병 유무, 술을 처음 접해 본 시기, 술을 마시는 횟수, 술을 자주 마시는 시기 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6문항(술은 풍류와 멋, 원만한 대인관계에 술은 필수적, 남자는 술 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 등)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간 신뢰도는 0.695였다.

3. 분석방법

SPSS 프로그램(ver. 23.0,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였으며, 범주형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연속형 자료는 평균±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 건강 지식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 주량, 술을 처음 접해본 시기 등과 같은 음주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1과 같다. 성별은 남자 53.3%, 여자 46.7%였고, 학년은 1학년 36.7%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2학년 순 이었다. 거주형태는 자택 62.0%, 비 자택 38.0%로 나타났다. 전공은 공학 26.3%로 가장 많았으며, 상경, 의료보건,

인문·사회·법학, 예술·체육 순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 매우 건강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 Variables | | N | % |
|-------------------|--------------------------------|-----|------|
| Gender | Male | 160 | 53.3 |
| | Female | 140 | 46.7 |
| Grade | 1 | 110 | 36.7 |
| | 2 | 72 | 24.0 |
| | 3 | 75 | 25.0 |
| | 4 | 43 | 14.3 |
| Type of residence | Home | 184 | 62.0 |
| | Not-home | 114 | 38.0 |
| Major | Engineering | 79 | 26.3 |
| | Humanities, Sociology, and Law | 51 | 17.0 |
| | Business administration | 57 | 19.0 |
| | Medical health | 55 | 18.3 |
| | Art and Physical Education | 35 | 11.7 |
| | Arts and Science | 23 | 7.7 |
| Health condition | Very unhealthy | 5 | 1.7 |
| | Unhealthy | 28 | 9.3 |
| | Average | 93 | 31.0 |
| | Healthy | 134 | 44.7 |
| | Very Healthy | 40 | 3.3 |

2. 성별에 따른 간 건강 지식수준에 대한 정답률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간 건강에 대한 정답률은 표2와 같다. “음주는 식도암 및 간암, 심혈관 질환, 간경화 발생의 위험인자이다.”($p=0.049^*$)과 “술이 세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p=0.044^*$)는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 간염의 차이를 알고 있다.”($p=0.048^*$)과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좋다.”($p=0.013^*$)은 정답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able 2〉 The level of knowledge of liver health according to gender

| Variables | Male | Female | Total | P |
|--|-----------|-----------|-----------|--------|
| Women are more vulnerable to alcohol-induced liver disease than men. | 85(53.1) | 79(56.4) | 164(54.7) | 0.566 |
| If you drink more than 4 shots of soju (rice wine) per day, you are at a risk level. | 84(52.5) | 74(52.9) | 158(52.7) | 0.951 |
| Drinking can cause esophageal cancer, liver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s, and hepatocirrhosis. | 147(91.9) | 136(97.1) | 283(94.3) | 0.049* |
| Drinking alcohol well does not mean that the person is healthy. | 145(90.6) | 135(96.4) | 280(93.3) | 0.044* |
| More than 90% of alcohol ingested through the mouth is detoxified in the liver. | 83(51.9) | 73(52.1) | 156(52.0) | 0.963 |
|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blushing face while drinking and the liver function. | 22(13.8) | 18(12.9) | 40(13.3) | 0.820 |
| Drinkers on the heavier weight side have higher risks of hepatocirrhosis. | 124(77.5) | 113(80.7) | 237(79.0) | 0.495 |
| Drinking high-end liquor damages the liver. | 72(45.0) | 64(45.7) | 136(45.3) | 0.901 |
| If the person quits drinking, the 5-year survival rate of a patient with alcohol cirrhosis would be about 90%. | 111(69.4) | 99(70.7) | 210(70.0) | 0.801 |
|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alcoholic fatty liver and alcoholic hepatitis. | 44(27.5) | 25(17.9) | 69(23.0) | 0.048* |
| It is better to frequently drink a little than to drink a lot at per time. | 105(65.6) | 72(51.4) | 177(59.0) | 0.013* |
| The incidence of cirrhosis is high when drinking alcohol for 15-20 years or more. | 149(93.1) | 130(92.9) | 279(93.0) | 0.928 |
| It is difficult to detect liver disease at the early stage. | 124(77.5) | 117(83.6) | 241(80.3) | 0.187 |
| Alcoholic hepatitis is a serious disease, which can cause a high mortality and serious consequences. | 139(86.9) | 124(88.6) | 263(87.7) | 0.656 |
| A human body absorbs alcohol,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alcoholic drink, mostly at the small intestine. | 63(39.4) | 51(36.4) | 114(38.0) | 0.600 |

3.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도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도는 대학생들의 술에 대한 일반적인 의식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6문항을 이용하여 Likert 5점 척도(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로 측정하였다. 6문항 중 여성의 음주행위에 대한 인식이 남자 2.78±1.10, 여자 2.26±0.99로 가장 유의하였고($p=0.001^{***}$), 그 다음이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p=0.001^{**}$),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술은 필수적이다 순이었다($p=0.002^{**}$). 6문항 중 술은 풍류와 멋을 더해준다는 제외한 5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으나 6문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관대한 편이었다.

〈Table 3〉 Social perception according to gender

| Variables | Male | Female | M | P |
|--|-----------|-----------|------|----------|
| Alcoholic drink makes life more elegant and tasteful. | 3.08±1.08 | 2.93±1.09 | 3.01 | 0.244 |
| Drinking alcoholic beverage is essential for making a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 | 3.84±0.87 | 3.52±0.84 | 3.69 | 0.002** |
| It is good for the man to know how to drink an alcoholic beverage. | 3.68±1.03 | 3.29±1.06 | 3.49 | 0.001** |
| It is better for the woman not to drink an alcoholic beverage. | 2.78±1.10 | 2.26±0.99 | 2.53 | 0.000*** |
| Passing the glass around is an amiable action. | 2.82±1.19 | 2.47±0.99 | 2.66 | 0.006* |
| I think drinking alcohol is essential in studying in the university. | 3.24±1.07 | 2.93±1.05 | 3.09 | 0.012* |

4. 성별에 따른 폭음 주기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폭음 주기는 표10과 같다. 남성에서는 폭음 주기가 ‘달에 1번’이 31.3%로 가장 많았고 ‘주에 1번’이 26.9%, ‘달에 1번 이하’가 18.8% 순이었다. 여성에서는 ‘달에 1번’이 30.7%, ‘달에 1번 이하’ 30.0%, ‘전혀 폭음을 하지 않음’ 17.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폭음 주기는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Binge frequency according to gender

| Variables | Never | Less 1 times a month | Once a month | Once a week | Everyday | P |
|-----------|----------|----------------------|--------------|-------------|----------|---------|
| Male | 18(11.3) | 30(18.8) | 50(31.3) | 43(26.9) | 19(11.9) | 0.003** |
| Female | 25(17.9) | 42(30.0) | 43(30.7) | 15(10.7) | 15(10.7) | |

IV. 고찰

국내에서 4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간암의 원인 중 20%가 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발병인 만큼 음주와 간 건강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특유의 잦은 회식문화와 과일 소주 같은 접근하기 쉬운 주류 생산 등 술 소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술을 처음 접하는 시기부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음주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8]. 특히 대학생의 대부분의 경우 음주 습관을 완성시키는 시기이고, 각종 동아리 모임이나 학과 행사, 축제 등으로 보다 많은 술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에 맞는 교육 자료를 마련해야 하므로 성별에 따른 음주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음주 습관, 간 건강 지식수준은 알아봄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도는 평균 3.07점으로 6문항 중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술은 필수적이다(3.69점)’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으며(3.49점), 대학생에서 술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였다(3.09점). 이는 2008년 송의 연구결과에 비해[4] 대체적으로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으나(2.78점) 송의 결과에서는 6문항 중 여성의 음주행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3.36점),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2.24점)이었다.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이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2.28점)이었으나 반대로 대학생활에서 술의 필요성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음(2.89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8년 전과 비교해서 대학생들의 술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조금 더 관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간 건강 지식수준에 대한 정답률은 15개의 문항 중에서 3개의 문항만이 9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는데 각각 ‘음주는 식도암 및 간암, 심혈관 질환, 간경화 발생의 위험인자이다.’가 97.1%, ‘술이 세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다.’96.4%, ‘15~20년 이상 음주를 한 경우 간 경변의 발병률이 높다.’ 92.9% 순이었다. 이에 대학생들의 음주지식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술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즉, 음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질환의 발생률도 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9]. 우리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주에 대한 올바른 습관개선과 간 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과 사회적 인식도를 알아 보고 그에 따른 음주습관을 파악하여 올바른 간 건강 지식과 습관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간 건강에 대한 지식수준은 전체에서는 총 15개 문항 중 3개의 문항만이 9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그 중 ‘음주는 식도암 및 간암, 심혈관 질환, 간경화 발생의 위험인자이다’, ‘술이 세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 간염의 차이를 알고 있다’, ‘술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 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4개의 문항에서 남녀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도는 여성의 음주행위에 대한 인식이 남자 2.78±1.10, 여자 2.26±0.99로 가장 유의하였고, 6문항 중 ‘술은 풍류와 멋을 더 해준다’를 제외한 5문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으나 6문항 모두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관대한 편이었다.
3.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폭음 주기는 ‘달에 1번’이 남자 31.3%로, 여자 30.7%로 나타났으며, 남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대학 남녀 간의 성별에 따른 간 건강 지

식도 수준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음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관대하고 폭음 빈도 또한 높은 점을 보아 여성에 비해 보다 심층적인 남성에 대한 음주습관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Choi MK, Jun YS, Kim AJ: A Comparative Study of Dietary Behaviors and NutrientIntakes According to Alcohol among Male University Students Chungnam.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5):978-985, 2001.
2. Jung BM, Oh ES, Choi SM, Cha YS: Survey of Alcohol and Non-alcoholic Beverage Preference in College Students of the Chonnam Area.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3):290-296, 2001.
3. Hong S-H, Cho J-H, Sohn C-G: Analytic Study for Alcohol Consumption-related Parameters in 53 Heavy Drinkers. Korean J Orient Int Med 28(1):115-123, 2007.
4. Song JY: Perception of and pattern of alcohol consumption and their effects on health-related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ji University, Seoul, 2008.
5. Koo BK, Chung JM, Lee HS: A Study on the Alcohol Consumption and Nutrient Intake in Patients with Alcoholic Liver Disease. Kor J Nutr 30(1):48-60, 1997.
6. Son GS: A study of clinical usefulness of carbohydrate deficient transferrin in patients with alcoholic liver disease. Korean J Clin Lab Sci 37(1):8-15, 2005.
7. Park B-C: Alcohol and liver disease. J Life Science 5:145-150, 1995.
8. Shin S-H, Lee J-T, Lee C-K, Kim D-H, Ahn J-H, Huh M, Kim K-K: Drinking cognition, attitude and liver function changes by drinking reduction program. J Korean Alcohol Science 8:17-28, 2007.
9. Lee M-K, Han N-S, Lim C-H, Jung H-R, Cho J-K: Risk factors of analysis of alcoholic liver diseases by ultrasonography. J Contents Association 9(3):185-194, 2009.